**쓰지가하나조메 기법으로 염색한 정자문양 도후쿠**

여기에 전시된 ‘도후쿠’라 불리는 장식용 상의는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영주가 가신들의 봉사에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하사했던 의복입니다. 노란색 비단 천에 무명 안감을 입힌 이 도후쿠에는 테두리가 있는 톱니 모양의 세 가로줄이 시보리조메 기법(천의 일부를 묶거나 감는 등의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 염료가 스며들지 않도록 방지하여 무늬를 만드는 기법)으로 염색되어 있습니다. 붉은 선 안에는 흰 바탕 위에 네 개의 꽃잎이 마름모꼴로 배치된 문양과 도라지꽃 문양이 모두 황록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. 노란색 부분에는 보라색, 흰색, 노란색으로 된 커다란 정자 무늬가 입혀져 있습니다. 이 도후쿠는 당시 장인 기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염색 기술과 비단이나 염료를 아낌없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.

이 도후쿠는 1603년부터 1867년까지 일본 전역을 통치했던 도쿠가와 막부의 초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(1543~1616)가 야스하라 덴베에라는 이름의 광산 경영자에게 하사한 것입니다. 1603년 이와미 은광의 야스하라 갱도에서 13.5톤의 은이 생산되자 그는 이 은을 막부에 헌상했습니다. 이 어마어마한 헌상품을 바친 야스하라는 쇼군을 알현할 수 있는 허가를 얻었는데, 그때 이 도후쿠를 선물받았던 것입니다. 이 도후쿠는 이와미 은광을 비롯한 각지의 광산이 생산하는 귀금속의 양에 의해 재정이 좌지우지되었던 막부에게 은광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자료입니다. 여기에 전시된 도후쿠는 복제품으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진품은 교토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.